

문화광장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우주의 어느 별에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나 숨 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 힘들게 일해도 생활 가능한 소득은 받을 권리. 아프면 생계 걱정 안하고 쉴 권리.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갈 권리. 지금 여기 살아가는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 모입니다. 또 다른 나와 연대하여 다른 내일을 만드는 희망. 언어와 그림과 몸짓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연결하며 세상과 통하는 시대의 거장들이 권유하는 아름다운 삶을 만납니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www.unioncraft.kr)가 만든 후원전시회

노동과 예술의 네트워크

‘아름다운 삶을 권유하다’(8월 21일~9월 2일)의 발문이다. 역병이 창궐해 서로 만나자고 말걸기도 어려운 시국에, 아름다운 만남을 권유하는 전시가 열렸다. 주재환, 신학철, 김정현, 민정기, 임옥상, 이종구, 박불똥, 류연복, 정정업, 최병수 등 민중미술운동의 대표작가들을 비롯해 김천일, 박영균, 박은태, 이운엽, 이선일, 전진경 등 미술의 사회적 실천에 앞장서 온 여러 작가들이 함께했다. 대중의 발길이 끊긴 상황에서도 이 전시의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어렵사리 현장을 찾아 소수자들의 연대라는 훈풍을 만들어줬다.

이 전시를 꾸리는 데 주역을 맡은 두 인물이 심상찮다. 심광현과 한상균이다. 심광현은 1980년대를 풍미한 민중미술운동의 논객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그는 새로운 이론적 생산과 현장 실천의 최전선에 있었다. 이후 한예종 영화원 교수로 재직

하면서 미술계와 거리를 뒀던 그가 이번 전시 기획을 맡으면서 25년만에 미술계에 복귀했다. 원로에서 중견에 이르는 화려한 작품작가 라인업을 엮어내고, ‘문명사적 이행기의 노동과 예술의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를 위하여’라는 장문의 전시기획 글을 발표하며 현장의 전시기획자로 머리품과 발품을 팔았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한상균은 박근혜 정권 때 시위 주도 등의 이유로 6년간 옥살이를 한 후 출소해 얼마 전 쌍용자동차에 원직복직된 노동운동가다. 감옥에서 나온 그는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며 2500만 노동자 중에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10%만을 위한 싸움에 전력을 다했던 자신을 성찰했다고 한다. 90%의 노동자들에게 우리사회가 어떤 이야기를 건넬 수 있을지에 대해 문명사적 전환의 관점에서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권유

하다’라는 단계를 만들어 노동운동의 새 판 짜기에 나선 까닭이 여기에 있다.

노동운동과 예술운동의 두 거장이 합세해 소수자 중의 소수자들을 위한 노동과 예술의 연대를 시작했다. 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만한 사건이다. 기실 노동의제는 예술적 탐구의 소재나 주제로 자리잡기 어려운 것이었다. 노동의 가치와 예술의 가치가 서로 격이 다르거나 상충하는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다. 그러나 소수자, 인권, 성역할 등의 주제들에 밀착해있는 현대미술의 특성상 노동의제는 빠질 수 없는 키워드 중 하나다. 거대권력으로 자리잡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복직노동자 한상균과 수십년만에 미술계로 돌아온 미술평론가 심광현의 협업이 상징하는 바, 바야흐로 협업과 연대의 시대 정신이 노동과 예술의 새로운 네트워크로 공진화하고 있다.

사설

이 엄중한 상황에 숙박시설서 파티라니

제주도내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게스트하우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가운데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한 게스트하우스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30일 기준 총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의 최초 확진자는 해당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36대 주인 A씨입니다. 지난 24일 총 위원장 출신의 복직노동자 한상균과 수십년만에 미술계로 돌아온 미술평론가 심광현의 협업이 상징하는 바, 바야흐로 협업과 연대의 시대 정신이 노동과 예술의 새로운 네트워크로 공진화하고 있다.

손님들과 함께 야간 파티에 참여했습니다. 또 해당 게스트하우스 방문 이력이 있는 C씨(강동구 138번)는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C씨가 머물렀던 제주시 에블립 소재 게스트하우스 직원(제주 41번)도 감염됐습니다. A씨의 빛나간 행태로 인해 감염자가 속출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제주지역이 자칫 게스트하우스 발 ‘n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티를 벌인 곳이 문제의 게스트하우스만은 아닐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터넷상에 보면 제주에 왔던 관광객이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를 즐겼다는 후기를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극히 일부 게스트하우스의 예기일 겁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를 열었습니다. 37번 확진자는 A씨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직원 B씨입니다. B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근무하면서 25~26일 A씨와 밀접 접촉한데다

서귀포시 농업 워킹그룹에 주목한다

수 년째 이어진 제주농업 위기감이 코로나19로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농산물 소비위축, 과잉생산의 악순환 구조를 반복하지만 농협과 행정의 가시적 해책 가능성은 커 전지출입 명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 문미숙기자

을 하모2리마을회관에서 마을 워킹그룹회의도 열렸습니다.

농업 워킹그룹이 제때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선 참여기관 모두 ‘발상의 전환’을 전제로 나서야 합니다. 과잉생산 소비위축을 풀 방안은 뭘지, 유통구조는 어떻게 바꿔 갈 것인지, 생산단계부터(인력)비용을 줄일 방안은 무엇인지, 거기다 농산물 수매단이 결정과정을 보다 전문화·선진화시킬 방법은 왜 못찾는지 등 무수히 많은 과제들에 전례없는 대안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주농업의 과제들을 풀 해법 찾기가 쉽지 않지만 워킹그룹 참여기관 누군가는 나서야 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농업을 살린다면 행사장이나 열 워킹그룹 첫 회의는 초지 불법 월동채소 재배 근절방안, 노후 무세척시설 교체 지원 등 월동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들을 제시한 데 이어 향후 구체적 실행계획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어 31일에는 대정

뉴스-in

배 단장 “학자적 양심 따라 이름 올렸다”

광화문 집회 독려 광고 파장

○...제주지역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나서고 있는 배준명 제주도감염병관리단장이 최근 이뤄진 광복절 광화문 집회의 성공적 개최를 바란다. 독려성 신문광고에 이름을 올린 배 단장은

역사투길포럼 회장인 배 단장은 지난달 12일 모 중앙지의 전면광고에 이름을 올린 데다 역사투길포럼도 이를 후인 14일 SNS 계정을 통해 집회 집합공고를 발표.

이에 대해 배 단장은 학자적 양심에 따라 이름을 올렸으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 백규탁기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제주도가 지난달 30일 도내 코로나19 40번째 확진자의 청사 방문 사실이 확인돼 31일 오후까지 9개 부서서 임시폐쇄되는 일을 겪고 서야 방문객 일지를 작성. 시는 그동안 청사 분관 출입구 2

곳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객의 발열 여부만 확인해 왔는데, 31일부터는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업무의 방문자 출입도 통제.

이와 관련 일각에선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관공서는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커 전자출입 명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 문미숙기자

초청간담회 긴급 취소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31일 예정됐던 현길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계위원회 초청간담회를 긴급 취소.

제주지역분부는 이날 현 위원장과 제주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이 직면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제주지역 코로나 19확산에 따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

지역본부 관계자는 “LP가스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을 거론할 예정이었다”며 “사태가 잠잠해지면 다시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언급. 고대모기자

열린마당

희망일자리사업 신청하세요



강동인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며칠 전 통계청에서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8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시지역 고용률은 58.3%로 전년동기대비 2.0%p 하락했고, 서귀포시의 경우 69.4%이지만 이 또한 하락한 수치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리수를 기록하며 보건당국은 물론 경제 전반에 대한 깊은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 충격으로 고용시장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에서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 등을 비롯, 고용 취약계층들의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희망일자리를

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생활임금을 적용해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1개월 근무하면 200여만원의 근로소득이 생긴다. 이는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보다는 많은 금액으로 가계유지에 적합한 보편이 되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는 302개 사업에 817명의 시민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해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제주도 민으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폐업 등을 경험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에게도 참여기회를 주고 있다.

서귀포시가 전국 시단위 지역에서 7년째 고용률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시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소나기는 피해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한시적인 일자리제공이 근본적인 고용해소에는 부족하지만 희망일자리를 신청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잠시나마 해소되길 희망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김병훈(건설업) 아버지 김해김공 경수(향년 86세)께서 서기 2020년 8월 29일 오전 10시 11분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일 포: 2020년 9월 2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9월 3일(목요일) 오전 5시
▶발인장소: S중앙병원장례식장 제1빈소
▶장 지: 해안동 가족묘지
부인 강화옥
아들 김병훈 며느리 강애숙
김정훈 강윤실
김동표 강경희
딸 김한희 사위 박봉진
※연락처: 김병훈 010-2692-7435
김정훈 010-8903-8995
김동표 010-2830-3890
김한희 010-2202-5143
박봉진 010-6727-5132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릉2리 용암동글게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금매 (운석)
• 감정가 : 20억원
• 매매가 : 2억원 (절충)
※ 대물가능 ※
연락처 010-4855-6013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3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양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